



1920년대, 이 시기 문학은 근대문학의 도입이 시작된다.

문화 통치에 맞선 저항의 시대로 이 당시 문인들은
일제의 침략으로 위축되었던 문학계가 활기를 띄게 된다.

이 시기에 충북 대표문인으로 민족문학의 선구자 포석 조명희와
문학에서 미술까지 넘나드는 종합 예술인 권구현,
그리고 민족 고유의 정서를 확립한 「임꺽정」의 벽초 홍명희가 있다.

아나키즘 깃발 올린 천재 시인 권구현

우리 문학사에서 아나키스트로 기록되는 이가 있으니, 충북 영동 출신의 흑성(黑星) 권구현이다.



권구현은 무정부주의 경향의 시인으로 「시조 6장(時調六章)」, 「폭풍우의 마음」(1927)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프롤레타리아문학이 목적 의식을 내세워 도식주의와 기계주의 경향으로 기울자 김화산·강허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아나키스트 문학에 가담, 프롤레타리아 문학파와 논쟁을 벌였다. 시집으로 『흑방(黑房)의 선물(1927)』, 『벗에게 부치는 편지(1929)』, 『자중(1929)』 등이 있다. 그는 시인 외에 서예가와 만화가로도 활동했다. 박영희와 김팔봉이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 때 '장검(長劍)'과 '백인(白刃)'의 참신한 비유를 보여주며 더 유명한 평문이 된 「전기적 프로예술」을 써서 '논객(論客)'이 되기도 했다.

01 흑성(黑星) 권구현의 출생 : 1898-1921 / 1-24세

권구현은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479번지에서, 아버지 권효준과 어머니 김렴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구현(龜鉉). 아호(雅號)는 흑성(黑星)이다. 이 밖에도 천마산인이란 필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천마산인(天摩山人)은 그의 고향에 있는 천마산에서 따온 것으로, 권구현이 추구했던 아나키즘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조부는 현감을 지냈고, 아버지 효준은 그의 조부 밑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권구현의 아버지는 벼슬을 지내지는 않았지만 망국의 현실을 개탄하며 자녀들에게 민족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권구현은 영동보통학교를 1910년에 입학하여 1915년에 졸업하였다. 당시 학적부에 나타난 권구현의 성적은 보통이었지만 국어와 독서는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고향에 머물던 권구현은 1917년 10월 8일에 김영선과 결혼한다. 그후 1918년에는 1남 승달(承達), 1921년에는 2남 승채(承彩), 1929년에는 3남 승춘(承春)이 태어났다.



권구현의 출생 지역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479번지

02 유랑하는 아나키스트, 일본유학 : 1922-1927 / 25-30세

25세가 되던 해인 1922년에 권구현은 유랑 극단원이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다. 이러한 전국 유랑 체험은 전국 각지의 지명과 그곳의 특징을 소개한 동화 「수달피(水獺皮)의 강산(江山)구경」에 잘 드러나 있다. 권구현은 이 유랑 극단에서 단가를 불렀다. 그의 단가 부르는 솜씨는 고종 탄생 어전에서 판소리를 불러 유명해진 당대 명창 이동백(李東伯)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뛰어났다고 한다.

다음 해에 권구현은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고향 후배에 의하면 동경미술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권구현이 상급 학교를 진학했다는 점과 동경에서 체류한 정황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동경 백조회 미전과 임간사 미전에 입선을 하였다. 권구현의 아나키즘 사상은 동경 유학시절에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고뇌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1925년까지 동경 유학 생활을 하고, 그해 귀국하여 다음 해인 1926년에 카프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이 때, 그는 『시대일보』(1926. 6. 7)에 「시조 4장」을 발표하면서 등단한다.



권구현의 미술작품

좌_남산소녀(제4회 조선미전 입선작)

우_산춘모우(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

03 본격적인 문단 활동, 카프에서 아나키스트로 : 1927-1932 / 30-35세

1927년에 당대 아나키스트 시인 중 유일하게 『흑방(黑房)의 선물』이라는 시집을 발간한다. 권구현은 1926년에 카프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시대일보』에 약 29수의 시조를 발표한다. 이후 1935년까지 시조와 자유시를 매년 지면에 발표하였다. 이는 권구현이 시인으로 활동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

카프를 통해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였으나, 1927년에 카프에서 제명당하고 만다. 권구현은 기본적으로 카프가 주장하는 계급주의나 프롤레타리아 문학론에 대해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김화산과 함께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카프를 비판한 것은 당연히 그 조직으로부터 제명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카프를 나온 권구현은 그 해 아나키스트 단체인 '관서 흑우회'에 참가하였고, 1928년에 '자유예술동맹'을 조직하고 이향과 함께 『문예광』이라는 잡지 발간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가 그에게는 아나키스트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된다.



04 종합 예술인 권구현의 활발한 창작 활동 : 1934-1938 / 37-41세

권구현은 이 시기 문학 작품 창작에 전념하기보다는 미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권구현은 1926년에 제 4회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부에서 「남선소녀(南鮮少女)」로 입선하고, 이후 1934년에 「춘희(春姬)」로 조선미술전람회 동양화부에서 입선하였다. 또한 권구현은 1931년 조선일보사 후원으로 영동에서 서화전 전람회를 열었고 평양, 쌍계사 등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미술 작품 창작 활동과 함께 미술 비평도 활발히 전개한다. 귀국 후 시, 소설, 수필, 평론 등 문학 분야와 회화, 만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했던 그의 활동이 1935년을 지나면서 뜸해진다. 이후 2년 후인 1937년 순천에서 박봉이 씨와 동거하는 중 자살하였다고 전해진다.

그가 직접 서술한 것으로 보이는 권구현의 이력에서 여기란(餘技欄) 『조선문학』1934.1에 '미술과 술이라고 적고, 성격 및 장점은 진의(眞意)라 적었다. 또한 단처(短處) 인격을 털끝만치라도 무시당하면 갖가지로 해보는 그러니만치 나는 개성적이다.'라고 적은 것을 보아 개성적이며 선이 강했고, 서화에음(書畵藝音)은 물론 술도 잘한 자유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다.



작가연보

- 1898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479번지 8월 17일 출생.
- 1911 영동 보통학교 입학.
- 1915 영동 보통학교 졸업.
- 1917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김이수의 딸 김영선과 결혼.
- 1918 장남 권승달 출생.
- 1921 차남 권승채 출생, 유랑극 단원으로 전국을 유랑하며 시조창을 부름.
- 1922 동경미술학교 유학-문학에 뜻을 두고 시와 시조습작, 관동대지진 이후 아나키즘에 경도.
(일본의 아나키스트 오스카 사카에와도 교류)
- 1925 귀국.
- 1926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가입, 제4회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부 입선.
- 1927 시집『흑방의 선물』발간, 관서흑우회 현판 휘호 씀.
- 1928 아나키즘 예술 단체 『조선자유예술동맹』창립 발기.(권구현, 이향, 이흥근)
- 1929 삼남 승춘 출생.
- 1931 권구현 서화전.

작가연보

1932 서울에서 영동으로 내려옴.

1933 라디오 방송 참가: 가정 강좌-위인의 사생활(12.4. 2시), 다시 서울에 올라옴.

1934 제12회 조선미술 전람회 동양화부 「춘회」 입선, 미술 강연회.(청주: 공회당)

조선미술연구소 10인 화전(1.25 ~ 28: 기독교청년회관)에 참가.

1935 제13회 조선미술 전람회 동양화부 「산촌모우」 입선, 미술전람회(평양), 빈민 동정 서화회(진남포), 최린 폭력 취체 혐의로 6개월 구형.(경성지방법원)

1938 개인전(하동), 지리산 개인전(쌍계사)— 순천에서 자살.